

문화예술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에 관한 연구

The Systematic production of Culture and Arts Statistics in Korea

안 인 자(In-ja Ahn)*

초 록

유네스코의 문화지표체계(Framework for the Culture Statistics)는 문화영역 구분과 문화활동구분을 제시함으로써 문화통계의 근간이 되고, 평가 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문화통계의 지표체계와 통계 항목간의 균형을 검토하였다. 문화정책개발원의 「문화예술통계」는 지표체계연구, 지표생산, 통계생산 및 지표개선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생산을 거치고 있다. 반면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는 국가선정, 해당국가의 독창성이 반영된 지표체계와 통계항목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

ABSTRACT

UNESCO Framework for the Culture Statistics(FCS) is composed of cultural media and cultural activities. It's structure has become a standard and criteria for cultural statistics of the nations in the world. In this paper 「Culture and Arts Statistics in Korea」 and 「Culture and Arts Statistics of Developed Countries」 has been analyzed based with FCS, in the respect of the structure and equality of the statistical items in cultural fields. The former has been published rationally through the steps of structural research, producing items and renew the structure, but the latter hasn't. The latter needs the policy to select the nations and research for the cultural structure to apply for them.

키워드: 문화통계, 문화지표, 문화예술통계, 통계생산, 문화예술통계집,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

* 동원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ijahn@tongwon.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5월 24일

1. 서론

21세기는 지식, 정보에 이어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의 힘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또한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문화경제의 시대라고 까지 칭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2000년에 GNP 대비 '문화예산 1%'를 넘어서 문화예산 1조원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대한매일 2001.9.26 16면). 이 시기에 문화정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시대 산물이며, 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가장 기초자료로서 통계정보는 필수적인 기초정보이다.

통계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자료 중의 하나로서 사회, 과학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기초자료이다. 참고자료의 종류 면에서는 연감류에 속한다. 이의 높은 이용도와 효용도는 연구논문의 참고문헌을 분석하는 인용분석이나 정부간행물이용도 조사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든 도서관의 참고자료실에서 가장 효용도가 높은 위치에 통계집을 배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많은 통계자료가 이론적 체계가 부족하고, 이 체계에 통계적 실체를 생산해내기가 어렵고, 단지 활용이 가능한 통계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에 관한 분석적 해석이 없고, 단지 범례만 있거나 단순히 통계적 수치만을 제공하는 점도 있다(유네스코위원회 1986).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개의 자료를 통합하여 내리는 결론이 불합리할 수 있으며, 재해석의 실수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색인의 부재, 정보소재에

관한 안내부족,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는 등 정보전문가의 입장에서 참고서비스가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정보서비스를 담당하여야 하는 정보전문가의 입장에서 문화통계의 체계, 항목의 구성 및 생산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통계자료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잠재적 통계항목의 개발과 정보서비스 시기에 통계의미 해석과 대체 항목 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방법으로는 국제적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UNESCO 문화지표 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기준으로 국내 문화통계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통계의 특성과 기능을 알아보고, 이러한 역할 하기에 적합한 양질의 문화예술 통계자료의 구비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통계와 지표

2.1 통계의 특성

1) 정의

통계는 불확실성 극복을 위하여 얻어지는 수량적 자료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얻어지는 통계는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해석, 즉 특성인식을 위한 해석이 요구된다(윤기중 1986).

유럽에서는 통계를 사회적 인간생활의 상태와 현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로서 인간생활의 상태와 현상을 해명하는 과학으로 취급하는 반면 영미에서는 다른 학문연구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도의 유지가 그 생명이다.

통계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위원회 1986).

첫째, 기초정보이며, 압축정보이다.

둘째, 통계는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경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요구를 분석하며,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셋째, 대부분의 통계는 정부기관에서 업무활동의 결과로 수집되는 정부정보로서 생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자료이다. 또한 통계집을 편찬하는 경우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모든 자료를 생산하기보다는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산출된 행정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추가작성으로 보완하며, 별도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자료의 대부분은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계수화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재정리 분류해야 하는 막대한 작업이 요구된다.

넷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자료로서의 통계는 의미해석이 필요하다. 사실정보로서 의미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며, 주관적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나아가 연구자가 통계의 숨은 뜻 읽어내고, 의미를 부여할 때 왜곡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더구나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재구성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의 능력과 지각에 의한 해석에 따라 그 이상의 것을 유추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현상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와 통계생산자가 제공하는 통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이지만 특정치를 정하거나 한계를 정하기가

불가능하여 통계 수치로써 계수화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다.

2) 기능

이러한 특성의 통계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정책개발기관이나 정책당국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둘째, 모든 분야의 학술연구자에게는 연구의 기본도구이며,

셋째, 국제적 문화수준의 비교 및 평가도구이며,

넷째, 기업에게는 사업의 투자를 위한 결정자료, 생산품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자료 등으로 필수적인 정보이다.

따라서 통계는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세계적인 틀과 흐름을 같이 하여야 한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2 통계·지표·지수의 관계

통계의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표(Indicator)는 단순자료나 기본자료의 성격이 강하여(예; 2000년의 학령인구수 등) 외형적인 형태는 통계와 같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성격과 사회의 현재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보고하여 주는 기술적 성격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체계의 항목은 사회의 변화에 부합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 조사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의

사회지표 2000).

지표의 예를 들면 OECD 교육지표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1997) 1장의 「교육의 인구·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청소년인구의 상대적 비율(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연령집단별 인구비율), 성인인구의 학력(최종학력별 25~64세 인구비율), 25~64세 인구의 학력수준별 기대 취업과 노동인구비율, 25~34세, 55~64세 여성인구비율 등 상대적 평가와 실태 파악이 가능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지수(Index)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호비교를 위한 수치이다. 즉 동일한 조건 하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비교하기 용이한 수치를 의미한다(각국의 평균수명, IQ지수 등) 그러므로 지수는 지표처럼 특정현상이나 현상을 대표하는 수치 내지는 기호로 정의되며, 자연현상은 물론 사회 및 인문현상과 같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유용성이 인식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지표를 통계와 동일한 내용 및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표는 통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통계수치 및 통계자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표가 반드시 통계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맥락에서 생산되지 않는 통계는 그 자체로는 단순한 현황 기술이외에 별 의미가 없으며, 지표는 바로 그 맥락을 구성해 준다는 점에서 통계를 지표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계와 지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표가 통계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지표작성과 밀접한 관계 가지고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3.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

3.1 문화통계와 문화지표

문화현상은 양적인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이상의 것이다. 즉 삶의 질이란 양적인 척도로만 판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지표는 양적인 정도를 가름하는 계량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량적인 방식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측정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지만 다양한 세부지표를 종합지표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량적 표현의 한계 내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틀을 만든 것이 문화지표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문화지표는 계량화된 통계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문화통계(cultural statistics)'라는 용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유네스코의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가 '문화통계들'(백선복 1987) 혹은 '문화지표체계'(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이문웅 1987) 등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 사실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문화지표의 경우에는 문화통계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

문화지표 및 통계의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개별국가나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독자성과 국제 비교분석을 위한 문화적 공통성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보전, 발전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국제비교 등 분석적 효용성과 지표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공통된 개념 및 계량적

정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둘째, 체계에 포함되는 지표가 개별적이기 보다 상위개념의 규범적 가치나 방향을 나타내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화와 그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일상생활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이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지표체계와 구조이든지 문화의 질, 사회적 형평성과 향유, 민간주도(democratization), 일상생활 접근(access) 등의 시각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 즉 사회지표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해야 되어야 한다.

3.2 문화지표 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바람직한 통계는 각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용 통계들의 편집물은 아니다. 문화분야의 각종 통계들이 다수 작성되고 있지만 각기 특수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부분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통계들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로 흡수하여야 하며, 문화통계 및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체계(framework)를 잡는 일은 통계 생산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문화지표 체계는 1960년대의 통계의 표준화에서 시작하였다. 표준화 연구 과정에서 「문화지표체계 권고서안」(1981)은 내놓았는데, 이 연구는 문화통계를 '문화지표' 수준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문화지표 체계는 문화매체의 종류에 의한 구분과 문화활동의 유형을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하여 행렬표를 구성한다. 여기서 문화매체의 종류란 문화영역의 세분화된 카테고리라 볼 수 있는데 문화유산, 인쇄물과 문예, 음악, 무대예술, 조형예술, 영화 및 사진, 방송, 사회 문화적 활동, 스포츠와 게임, 자연과 환경의 10구분이다(표 1). 문화지표를 특별한 목적으로 창안할 경우 매체의 종류 즉 문화영역을 수정할 수 있다. 즉 이 체계가 특정국가에 적용될 경우 문화의 독자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

문화활동의 유형은 창작과 생산, 전달과 보급, 수용과 소비, 보호와 기록, 참여의 5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는 문화활동의 흐름을 창작에서 참여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표 2).

표 1과 표 2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체계와 구조를 이루는 개별 문화지표를 예로 들면 표 3과 같다. 문화매체의 범주 5에 해당하는 영화부문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계항목은 영화생산, 영화유포, 영화소비, 영화참여 등의 항목이 있다. 생산부문에서는 연간 영화제작편 수, 장편영화 수, 단편영화 수 등, 배포부문에는 상연극장 수, 좌석 수 등, 소비 부문에는 관객총수, 보존부문에는 보관필름 수, 보관소 이용지수 등, 참여부문에는 영화 회원 수 등의 통계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체계를 지수화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며, 이 통계자료의 소스는 정부 및 민간통계기관에서 실시되는 통계조사가 된다. 하지만 어느 사회도 통계체계에 해당하는 모든 통계치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국가가

표 1. 유네스코 문화지표체계(FCS) 중 매체의 종류

종 류	세 부 분 류
0. 문화적 유산	0.1 역사적 기념물 및 유적 0.2 기록보관소 0.3 박물관 0.4 고고학적 발굴 0.5 공공의 보호를 받는 다른 형태의 문화적 유산 0.6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목록 작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적활동
1. 인쇄물 및 문예	1.1 문예창작 1.2 도서출판 1.3 정기간행물 및 신문출판 1.4 도서, 정기간행물 및 신문의 보급 및 마케팅 1.5 도서관 1.6 문예생산 및 인쇄에 필요한 부수적 활동
2. 음 악	2.1 음악창작 2.2 음악공연 2.3 오페라 공연 2.4 악보출판 2.5 음반출판 2.6 악보 및 음반의 생산 및 마케팅 2.7 악기의 생산 및 마케팅 2.8 음악의 창작 및 생산에 부수되는 활동
3. 무대예술	3.1 무대예술의 창작 3.2 연극공연 3.3 무용공연 3.4 기타의 무대공연(서커스, 음악당, 카바레, 쇼 등) 3.5 무대공연에 필요한 부수 활동
4. 조형예술	4.1 시각예술의 창작 4.2 시각예술품의 생산과 출판 4.3 시각예술품의 전시 4.4 시각예술품의 보급과 마케팅 4.5 시각예술의 창작과 출판에 필요한 부수활동
5. 영화 및 사진	5.1 영화의 창작 5.2 영화배급 5.3 상영 5.4 사진 5.5 영화 및 사진예술에 필요한 부수활동
6. 방 송	6.1 라디오 6.2 TV 6.3 기타 방송에 필요한 활동
7. 사회문화적 활동	7.1 사회 문화적 발의와 지역문화센터 7.2 공공 및 전문협회 7.3 기타의 사회 문화적 활동(종교 및 신앙과 관련된 의식과 회기능)

종 류	세 부분 류
	7.4 기타 사회문화 활동에 필요한 활동
8. 스포츠와 게임	8.1 스포츠 기구의 생산, 경기장 및 다른 시설의 건설과 유지 8.2 경기활동 및 스포츠 협회
9. 자연과 환경	9.1 식물군 및 동물군의 보호와 관련된 활동 9.2 자연과 환경에 관련된 여가선용활동

표 2. 문화활동의 기능적 구분

가. 창작과 생산
나. 전달과 보급
다. 수용과 소비
라. 보호와 기록
마. 참여

표 3. 영화부문 문화지표체계

하부범주	창조/생산	전이/유포	수용/소비	등록/보존	참여
범주 5	제작	배포 시스템	관객	보관 자원	아마추어를 위한
영화와 사진	연간 제작되는	배포기구 및	-유료관객 총수	-영화보관 기능	영화센터, 영화클
5.1 영화	영화 수	조직망의 수	-1인당 연간 관	을 담당하는 기	럽, 전문
5.2 사진	-시간별(장편, 단편)	-국내	람 평균	관수	영화 클럽 총수
	-언어별	-국제	-1인당 연간	<u>보관 내용</u>	-총회원수
	-제작국가별	공공상연장(극장 등)	극장출입	-보관되는	-매년등록자수
	(국내,국제,합작)	-좌석수(총계)	비용평균	필름수	
	· 주제별	-1000명당 좌석 수	-1인당 연간	-주제별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원	-스크린수(총계)	아마추어	-언어별	제작에 쏟는
	연간생산비총액	<u>연간상연영화수</u>	영화제작 비용	-제작연도별	시간
	총고용 인원수	-주제별분류		-원산지별	
	-분야별	-언어별(원어/ 더빙)		<u>보관소 이용</u>	
		-제작 연도별		-연간 입장자수	
		-제작 유형별 (국내,국제,합작)		-관람목적	
		-원산지별 (국산/수입)		-연구목적	
		<u>전시회 자원</u>		-재생산 및 방송 목적	
		-연간전시회 총비용 및 수입			

선진화되어 가용할 수 있는 기존의 통계가 상당수 있다면 질적으로 높은 통계실체를 만들 수 있다.

문화의 어떤 두 축을 조정하여 직조된 문화지표의 체계와 구조라도, 그것이 구체화된 통계의 경우 통계의 항목 및 양은 적더라도 문화적 독자성, 국제비교 가능성, 삶의 질로서의 문화, 문화의 질, 문화의 향유,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일상을 통한 접근성 등이 개별지표 및 통계항목의 구조 속에 내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체계를 각 통계집을 평가 분석하는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

4. 문화예술 통계자료 발간현황

4.1 국내 문화예술통계 자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각 기관에서 발행되고 연구되어진 문화예술 전반에 관련 통계자료집과 연구 조사보고서는 표 4와 같다. 표 4의 자료는 국가전자도서관의 서지 검색과 문화정책 개발원의 소장자료 검색을 통하여 검색된 자료이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통계는 1986년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에서 「문화예술통계집」을 발간한 이래 발행되는 모든 자료집에서 '문화예술 통계'라 통칭되어왔다. 하지만 광의의 문화 영역에 예술이 포함되어 지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문화통계라는 명칭이 타당하다. 또한 수많은 외국의 문화통계가 모두 Culture Statistics 혹은 Cultural Statistics로 발간되는 것으로 보이셔도 알 수 있다(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발간된 자료집을 대상으로 분석하기에 이후로는 문화예술 통계로 통칭하고자 한다.

국내의 문화예술 통계는 1980년대 이후 집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한국의 사회지표」(1979년)에서 교육문화지표의 일부항목으로 존재하였다. 그 후 UNESCO에서 「문화지표체계 권고서안」(1981)은 내놓았고 이 연구의 연장에서 1983년 아시아의 문화체계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에 맞추어 유네스코위원회와 한국의 문예진흥원에서는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최종 보고서」(1986), 「문화지표체계개선」(1995)을 발간하였다.

연구된 체계에 맞추어 문예진흥원과 문화정책개발원에서 국내 자료에 관하여 「문화예술통계자료집」(1986), (1989)을 출판하였다. 1992년 이후 「문화예술통계」로 제목이 변경되어 매 3년마다 수정 증보되어 발행되고 있다.

표 4를 통하여 살펴본 한국 문화예술 통계자료 발간 및 연구는 지표체계연구, 통계집 발간, 분석적 통계발간, 문화산업통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체계적인 문화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통계를 만들고, 이용자로 하여금 분석적 안목을 가지도록 인도하며, 문화경제시대로 도입하면서 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문화 분야의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문화예술통계」는 한국의 문화지표체계 연구에 의하여 330개 항목을 개발하였고(문화정책개발원 1986), 1995년 판에서는 12개 문화분야의 계수화가 가능한 197개의 항목을 개발하여 통계를 발간하였다(문화체육부, 문화정책개발원 1995). 초기의 체계 연구가 진행된 이후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문화지표체계 개선

표 4.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 통계자료집 및 연구 조사보고서

• 통계집 및 지표체계			
문화지표체계	1987. 1/2	월간 문화예술 통권 109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지표체계 개선	199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세계주요 문화통계	1990	문예연감부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	1996, 1998, 200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통계자료집	1989, 199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통계	1995, 1998, 200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계로 보는 우리문화	19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산업통계	2000		
문화향수실태조사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예술인 단체조사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단체 실태조사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연구조사보고서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최종 보고서	1986.	유네스코위원회, 문예진흥원	
문화산업통계 실태 조사연구	1999.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분야 통계조사 설계 연구	199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공예문화상품 제작, 유통실태조사 연구	2000.12	문화관광부	

연구가 이루어졌고, 결과 총 12개 분야에서 517개의 지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 개선체계는 1998년 통계집에 반영되었다. 1998년 판에서는 새로운 지표체계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항목 153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계수화 하였다 (문화정책개발원 1995).

4.2 국외 문화예술 통계자료

국내통계와 함께 국제적 연구에 필요한 통계로는 1990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출판한 「세계 문화예술 통계」가 있다. 본 자료는 유네스코 통계연감(UNESCO Statistical Yearbook)을 대상으로 문화통계항목만을 추출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소개된 유네스코의 문화 관련 통계는 표 5와 같이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유네스코의 관심사에 따라 문화뿐 아니라

교육, 과학, 기술, 통신의 포괄적인 국제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나라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비교 가능한 항목만을 선정했기 때문으로 일차적으로 항목이 너무 적으며, 문화선진국의 다양한 문화영역에 관한 항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개발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2) 각 나라에서 제출한 2차 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라마다의 통계적 신뢰도가 다르며, 검증 또한 어렵다.

(3) 해마다 항목의 변화가 너무 많다.

(4) 문화지표 체계상에서 볼 때 문화매체로는 인쇄와 문학 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17개 항목 중 12개 항목), 기능구분에서는 창조 영역(17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표 5. 최근 5년 간 유네스코 통계연감의 문화예술 부문 항목비교표

대범주	하위 범주	'95	'96	'97	'98	'99
문화통신 주제별 정보	도서 발행 종수	0	x	x	x	x
	일간지 발행현황	0	0	0	0	0
	신문용지의 수급	0	0	0	0	0
	기타 인쇄용지 수급	0	0	0	0	
	영화제작	0	x	x	x	x
	영화관 현황	0	x	x	x	x
	영화관객 수	0	x	x	x	x
	라디오 청취현황	0	0	0	0	0
	TV 시청현황	0	0	0	0	
인쇄물 관련 정보	도서관종별 현황	0	0	0	0	x
	국립도서관 현황	0	x	0	0	0
	공공도서관 현황	0	x	0	0	0
	UDC 별 도서발행 종수	0	0	0	0	0
	주제별 도서발행 종수	0	0	x	x	x
	언어별 도서발행 부수	0	x	x	x	x
	UDC 별 도서발행 부수	0	0	0	0	0
	주제별 도서발행 부수	0	0	x	x	x
	교과서 출판 종수 및 부수	0	0	0	0	0
	아동도서 출판 종수 및 부수	0	0	0	0	x
	일간지 발행현황	0	0	0	0	0
	비일간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현황	0	0	0	0	
신문 및 기타 인쇄용지 수급	0	0	0	0	0	
영 화	영화제작 현황	0	x	0	0	0
	외화 수입현황	0	x	0	0	0
	영화관 현황	0	x	0	0	0
방 송	라디오방송 현황	0	0	0	0	0
	TV 방송 현황	0	0	0	0	
	라디오 프로그램 종류	0	0	x	x	x
	TV 프로그램 종류	0	0	x	x	x
국제무역	책, 팜플렛 수출입 현황	0	x	0	0	0
	신문, 정기간행물 현황	0	x	0	0	
	전년 대비 삭제항목수		12	4	0	2
	전년 대비 추가항목수		4	5	0	1

표 6. 유네스코 문화지표(FCS) 상에서의 1997년도 통계연감 항목 분포도

매체종류	기능	창조/생산	전이/유포	수용/소비	등록/보존	참여
0. 문화적 유산 (박물관, 기록보관)					1. 박물관 현황	
1. 인쇄매체와 문학		5. 일간신문발행현황 6. 비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7. 신문 및 기타용지수급(1995) 8. 신문 및 정기간행물 수출입현황 9. 분야별 도서발행 종류 10. 분야별 도서발행 부수 11. 교과서 출판 현황 12. 아동도서 출판 현황 13. 도서 및 인쇄물 수출입 15. 도서관 현황 16. 국립도서관 현황 17. 공공도서관 현황				
2. 음악						
3. 행위예술						
4. 시각예술						
5. 오디오 - 영화, 사진		3. 장편영화제작 4. 영화수입현황	2. 영화관 현황			
6. 시청각매체				14. 라디오 및 TV 보급현황		
7. 사회문화적 활동						
8. 스포츠와 게임						
9. 환경과 자연						

그 후 문화정책개발원에서는 1996년부터 매 3년마다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10여 개국 선정하여 1부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예술 통계자료를 항목별로 수록하고, 2부에는 유네스코 통계 중 문화부분을 추출하여 수록하였다. 이 자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국의 문화예술통계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가 유네스코 지표체계 상에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 7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 7은 현재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국내외 문화예술통계, 즉 98년도 한국문화예술통계와

2001년 수록된 11개국과 유네스코 세계통계항목을 유네스코의 지표체계에 배치한 것이다. 이 세 가지 통계자료를 지표체계와 비교하는 것은 본 통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지표적인 구조를 통하여 통계항목의 균형을 파악하고, 통계항목의 범주를 인식함으로써 사서가 이용자의 정보의뢰에 대응하여 대체할 수 있는 통계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은 각 나라의 문화적 독자성을 무시한 한계적 분석방법이기는 하지만 전체의 통계항목이 균형적인 지표 상에서 어디에 와있는지를 가늠하는 정도의 기능은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표 7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다.

(1) 각 국가별 통계 항목 수가 8개에서 많게는 24개에 이르는 등 편차가 크다.

(2) 스포츠, 문학분야, 영화, 문화향수 등의 항목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세계적인 문화산업 분야의 통계가 개발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 나라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문화 분야, 문화 관심영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즉 기존적으로 가장 많은 통계항목이었던 인쇄매체를 제외하면 미국은 대중매체, 스포츠, 싱가폴은 대중매체, 호주는 관광 등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가 외국의 문화예술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정보원이고,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 문

화통계를 제공한다는 면에서의 가치는 논할 여지가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수집 및 수집된 자료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 국가마다 문화범주의 다양성 및 독자성, 시계열의 다양성 등은 구조적으로 내재한 문제이다. 그 외에 비교 문화통계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개선이 요구된다. 해당자료의 특성과 문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체계에 대한 연구가 없이 유네스코 통계연감의 항목과 그와 비슷한 항목만을 선정하였다. 즉 항목 선정의 범위 및 대상국가 선정 기준이 없다.

둘째, 1996년 첫판부터 분석적 혹은 서술적 설명이 없다. 그러나 2001년 판에는 지표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표체계를 고려한 국내자료 「문화예술통계」에 비하여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는 통계 항목 선정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넷째, 나라마다 문화적 관심사가 다르고 문화독창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항목의 개념 및 의미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다섯째, 유네스코의 항목도 그러하듯이 인쇄매체 관련 항목이 너무 많다.

여섯째, 영화, 대중매체, 스포츠 등의 문화산업 통계항목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7. 국내문화예술통계와 주요국가문화예술통계 항목 비교표(Ⅱ)

대분류	지표항목	국가통계		주요국가의 문화예술 통계										유네스코		
		한국 (98)	미국	캐나다	싱가폴	일본	중국	네델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8. 영화	1. 영화인 교육기관															
	2. 영화인 현황	1														
	3. 영화인 단체		1	1		1	1	1	3	2	1	1	2	3		
	4. 영화관															
	5. 영화작품															
	6. 시상제도															
9. 연예	1. 연예인 교육기관															
	2. 연예인 현황	4														
	3. 연예인 단체															
	4. 연예장															
	5. 시상제도															
10. 대중매체	1. 서신 미디어	4														
	2. 인쇄 미디어	18														
	3. 유선계 미디어	0														
	4. O.A 관련 미디어	0	6	7	1	2	1	1		1			1	1		
	5. 쌍방향 미디어	0														
	6. 방송계 미디어	9														
	7. 패키지계 미디어	6														
11. 사회문화적활동	1. 사회문화시설의 현황	0				4	5		2							
	2. 사회교육	5														
	3. 학술활동	2		1	2					1	1					
	4. 종교현황	4														
	5. 사회단체	0														
	6. 지방문화제 및 전람회	0														
12. 여가활동	1. 스포츠	14		2	1	1				1		1	1			
	2. 관광 및 여행	12	6	1	4	1	3	3		5	2	4	9			
	3. 공원과 휴양지	3						4					1			
13. 국제문화교류	1. 학술	5							1							
14. 문화재정	문화관광부 예산/문예진흥원 예산		1						1		2	1	1			
15. 향수 및 시설	1. 여가활동		1										1			
	2. 문화예술 향수				1	2		3		5	2					
	3. 문화시설 이용										4		1	3		
16. 공연예술		1	1	4	1	1		4					2			
합계		153	24	19	19	24	16	16	19	16	21	8	23	16		

5. 문화예술통계 자료의 생산체계

통계를 자료의 출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수행결과 얻어지는 행정통계, 직접조사의 결과로 얻어지는 조사통계, 일차적으로 얻어진 보고통계 또는 조사통계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가공통계가 있다. 이를 관리 주체 면에서 볼 때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산하단체 등으로 생산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행정통계는 행정업무 처리상 얻어지는 통계로서 공연예술단체나 각종 문화시설 중 법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된 의무에 따라 해당단체나 시설이 법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상 기본적으로 파악하여 두는 자료들을 재정리하여 얻는 형태이다.

문화관광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행정통계는 주로 과 단위에서 생산하고 있다. 도서관 및 박물관과 관련 통계는 문화정책국 안의 도서관, 박물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室), 국(局)은 여러 개의 과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

할 뿐 해당분야의 통계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문화정책개발원 1995). 행정조사 및 보고를 통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생산되는 행정통계 이외에 타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행정통계도 상당수이다(문화정책개발원 1995).

행정통계 이외에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는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직접조사를 실시하거나 얻어진 통계를 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이 통계는 성격상 정부출연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에 관한 자료를 일부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행정통계의 경우 각 과에서 생산, 수집되는 통계자료는 과 단위이상의 실, 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주체기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렵게 생산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결과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구나 정부기관의 분리, 통, 폐합의 과정에서 통계 발간 담당기관이 없어짐으로써 폐간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예는 체육청소년부가 간행

표 8. 문화통계 생산기관과 자료

통계의 종류		생산기관	자료명
행정통계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국	예술단체현황, 전국전시장 총괄
		출판진흥과	출판정책자료집
	문화관광부 이외의 타 정부기관	정보통신부	정보통계연감
		건설교통부	건설통계연보(관광여행관련정보)
		산림청	임업통계연보(공원 및 휴양지정보)
조사통계	정부산하기관 이나 단체	국립중앙박물관	연보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통계
		영화진흥공사	영화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연감

하던 1992년 이후 「체육청소년통계연보」가 폐간되는 사례로서 알 수 있다. 반대로 한 분야에 관하여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통계는 한국관광공사와 교통개발연구원 관광연구실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내용의 통계가 중복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인력과 경비 면에서 상당한 낭비가 된다. 총괄 담당 부서의 부재, 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 폐간, 중복생산 등의 문제는 기존 대다수의 정부간행물 관리문제로 지적되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목적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유사 업무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보교환이 되어야 하며, 문화예술분야의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의 확립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용자가 문화예술통계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는 생산체계 뿐 아니라 유통, 보급의 측면과 자료검색의 측면에서도 현황의 파악과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통계자료는 모두 비매 혹은 기증의 유통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기증 받는 도서관이나 해당부처에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 특히 분야별 관련 자료는 문화관광부 자료실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 검색의 측면에서는 생산 출처, 제목 외에는 이용자에게 접근할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활성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후속 연구가 필요가 있다.

(1) 문화예술 정보소스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예술 정보색인을 생산하여야 한다.

(2)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그룹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요구항목 연구가 필요하다.

(3) 정보 배포체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서점 등을 통한 유통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료화하여 서점 등에 유통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외국의 경우 많은 정부간행물이 무료이지만 통계, 연감, 목록 등은 유료화하여 출판 상의 재정도 확보하고, 배포도 촉진시키고 있다.

인쇄물 정보 외에 온라인상의 문화 예술 통계로는 Stat-Culture (<http://www.kcpi.or.kr>)가 있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Stat-KOREA와 연동된 문화예술 관련 통계 프로그램으로 문화정책개발원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문화통계DB는 24개의 인쇄물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문화예술 통계, 문화산업통계, 연구관련 조사, 여론조사, 문화기반시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디렉토리 형식이며, 주제어나 통계항목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여, 실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책자형태의 통계자료는 일반문화통계 자료 메뉴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볼 수 있다.

6. 결론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는 그림 1과 같이 정보순환사이클 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항상 학습되어지고, 축적되어지며, 항상 변하는 문화와 정보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선행된 후 현재 우리 문화에 적합한 지표를 생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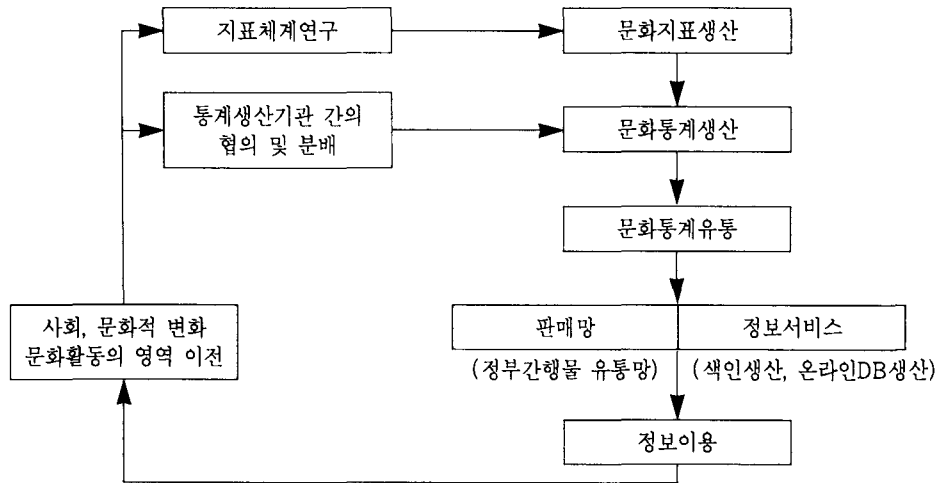


그림 1. 통계자료 생산과정

다. 통계 생산자는 이 지표 내에서 통계 항목을 개발하여야 하며, 참고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도 이 체계를 유념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 둘째, 이 지표의 체계 위에서 기존자료에 의하여 작성이 가능한 통계, 행정자료에 의해 추가작성이 가능한 통계,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요한 통계, 작성이 불가능한 통계를 구분하고, 통계기관간의 협의와 분배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셋째, 생산된 정보는 원활한 유통 시스템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다. 통계의 유통은 자료의 판매와 정보서비스기관을 통한 검색 서비스로 진행된다. 검색서비스의 결과와 이용자의 반응은 지표연구를 위한 새로운 추가자료로서 활용하여 지표개선을 시행한다.

한국의 문화예술 지표체계는 문화예술진흥원 및 1994년 이후 새롭게 출원한 문화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1986, 1995)가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체계 하에서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단

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의 (1989~)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국내통계는 우리문화에 관한 독창성이 고려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문화지표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문화예술통계자료는 유네스코 통계와 문화정책개발원의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가 있다. 그 중에 유네스코의 통계는 각 나라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비교 가능한 항목만을 선정한 것이어서 문화활동 영역이 서적, 신문 등 인쇄자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다. 또한 통계항목이 너무 적고, 문화선진국의 다양한 문화영역에 관한 항목이 부족하다. 「주요국가의 문화예술통계」는 대상국가 선정의 문제, 항목개발에 대한 연구의 부족 등의 기본적인 체계연구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정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경쟁국의 문화정책과 관심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지표체계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산기관간의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적합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백선복. 1987. “초점/문화통계, 문화지표란 무엇인가 -문화지표와 문화발전” 월간 문화예술. 통권 109호, 한국문화예술원
- 이문웅. 1987.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를 마치고” 월간 문화예술 통권 109호
- 윤기중. 1986. 통계학. 18p.
- 유네스코위원회, 문화예술진흥원 문화통계 및 지표체계연구 최종보고서 1986.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연간. 한국교육개발원. 34p.
-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Glance 1997. 한국교육개발원 208p. p.13-2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세계주요 문화통계 문예연감부록.
- _____. 1989, 1992. 문화예술통계자료집.
- _____. 1995, 1998, 2001. 문화예술통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1998, 2001. 주요 국가의 문화예술통계.
- _____. 1995. “문화지표체계 개선”, 291p, UN. Good Practices in Official Statistics. <<http://esa.un.org/unsd/goodpractices/about.asp>>
- UN.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by UN 통계위원회, 11-15 April 1994, <<http://srchl.un.org/Depts/unsd/acc-class.htm>>
-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Report of the The Joint Meeting on Cultural Statistics, Held in Geneva, 17-20 March 1986.
- UNESCO. Statistical Yearbook. 연간 1963-.